

# YH 여공들, 민주주의의 봄을 부르다

글 안재성 소설가, 평전 작가 / ajs4@hanmail.net



##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1979년 8월 초, 텔레비전 흑백화면에 “신민당사 농성 여공 전원 연행, 여공 1명 사망”이라는 자막과 함께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여성노동자들이 사지를 붙잡힌 채 질질 끌려가 경찰버스에 실리는 모습이 흐르고 있었다. 철저한 언론 통제로 집회나 시위에 대한 보도를 거의 볼 수 없었던 시절, 경찰버스 철창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나이 어린 여성들의 모습과 사망 소식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곧바로 언론을 통제해 텔레비전에서 더 이상 여공들의 강제연행 장면을 볼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소문은 견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농성하던 187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내건 플래카드의 구호였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18년, 전국 곳곳에 수출공단이 조성되고 거대한 제철소와 조선소들이 바닷가를 차지하며 번영의 선진조국을 노래할 때, 바로 그 생산의 주역이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런 절망적 호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 기업주의 꿈, 노동자의 꿈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심을 사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서 사양화된 섬유, 봉제, 신발, 조선 등 인력집약형 공장들을 대거 유입해 산업화에 나섰다. 이는 산업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동원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장시간 노동과 가난뿐이었다. 이날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숨진, 만 21세의 여성노동자 김경숙 씨의 고백이다.

“커다란 포부와 꿈을 안고 서울로 왔으나 고향에서 생각했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철야작업을 두 달 동안이나 밤낮으로 했을 때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건드렸다 하면 코피가 쏟아져 코를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삼개월 치 봉급을 받지 못해 오 원짜리 풀빵 삼십 원어치로 추위에 허덕이며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자살이라도 해버리자’는 마음도 들었으나 고향이 그 길을 막곤 했습니다.”

최소한의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하청회사를 전전하던 김경숙 씨는 가발을 만드는 YH무역에 취업하면서 다시 희망을 품는다. 한때 수출순위 15위까지 올랐던, 4천여 노동자가 일하는 대기업이었다. 큰 회사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월급도 제대로 받고 저축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한 만큼 벌어간다는 명분으로 강요되는 도급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도급제는 형편없이 낮은 도급단가로 노동을 착취하다가 일감이 줄어들면 그나마 지급하지 않는, 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였다. YH무역은 거의 전 공정을 도급화하여 최대한 노동력을 쥐어짜고 최소한의 대가만을 지급했다. 일거리가 없어서 공치는 날에는 밥값을 빚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업주 장용호는 미국의 백화점에 투자하거나 해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 무리하게 자금운영을 하다가 상당한 은행 빚까지 진다. 게다가 1978년 석유파동으로 세계적 공황이 오자 노동자를 5백 명으로 감축해



\*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무역 여공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는 경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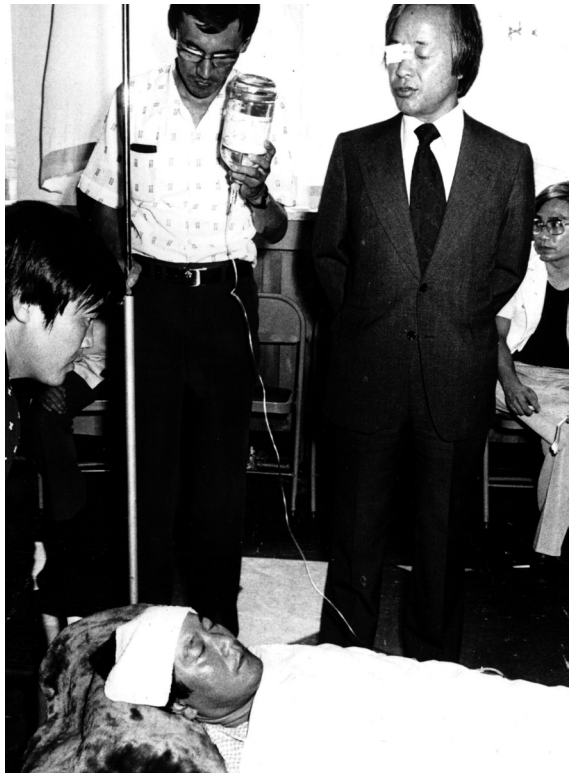
버리더니 1979년 4월에는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거래은행인 조흥은행과 노동부를 찾아가 장용호가 미국으로 빼돌린 돈을 회수해 공장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공장을 가동했다. 하지만 어떤 은행도, 관리도 그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좌경적인 불순한 의도로 간주하고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탄압하기에 바빴다. 결국 자치경영 두 달 만인 8월 6일 회사 측은 2차 폐업공고를 붙였고, 길거리에 나왔게 된 여성들은 신민당사 농성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 배신당한 희망

대부분 20대 초중반인 YH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 들어간 것은 1979년 8월 9일 아침이었다. 노동자들이 점거에 들어간 직후부터 경찰은 1천여 병력을 동원해 신민당사를 완전 포위하고 작전개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시각각 위협이 다가오고 있던 이튿날 밤 11시, 농성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흥분한 노동자 몇이 어깨 높이의 창틀에 올라가 천장을 잡고 서서 투신하겠다고 울부짖기 시작한 것이다. 노조집행부와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씨는 “살아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설득했다. 마침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20여 대의 경찰버스가 차례로 빠져나가자, 안심한 집행부와 국회의원들은 창틀에 올라간 여성들을 한 사람씩 강제로 끌어내렸다. 흥분을 가라앉힌 노동자들은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약속을 믿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 시각에도 경찰병력은 오히려 더 증강되고 있었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김영삼 총재가 경찰간부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진



\* YH사태 당일 중상으로 입원 중인 김형광 의원이 들것에 실린 채 신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을 위로하는 신민당 김영삼 총재

압의 좋은 명분이 되었다. 새벽 두 시경 어둡고 고요한 밤거리에 차량의 경적소리가 길게 세 번 울렸다. 101호 진압작전의 신호였다.

작전은 무자비하고도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당에 뛰어올라간 수백 명의 기동대는 여성노동자 한 사람에 4명씩 달려들어 곤봉으로 두들기고 사지를 들어 계단으로 끌어내렸다.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군화발로 걷어차고 짓밟아 기진시켜 질질 끌고 내려갔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도 코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인근 녹십자 병원은 밀려드는 부상자로 응급실이 넘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지경이었다.

생활의 발자취 김경숙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어느 누구나 리밋이 없으  
게 못할 사람이었다. 지방 환경화제로 인하여 여러사람들의  
취미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왔다. 그런데다가 나의 8세가 되던 해  
아버지의 갑작스런 평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상당히 애통해하셨다. 생계를 이어나야만 하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렵게 어머니의 도움으로 국민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졸업하자마자 겨울 양학 때부터 용광에  
취직을 하였을 때 돈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은 이가남과  
우리 가정이 잘 살수만 있다면 무슨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었다. 아들을 먹고 내가 배우지 못할 용광을 증명에  
게 가르쳐서 동생들은 성공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었다. 그리하여 노함을 등지고 라향에  
살을 옮이게 되었다. 개척에는 커다란 조수로 같은한  
생활을 했으나 와서초기 생활이 아니었다.  
노향에서 생활하던 곳은 이국할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내 할아버지까지 와서 살아가리라 하였는데  
하절농장에 취직을 하여 살안되며 철야작업을 한것

22

\* 생활의 발자취\_ 김경숙



\* YH 여공들이 강제로 연행된 뒤에 농성현장에 남겨진  
"안되면 죽음이다" 라고 쓰인 머리띠와 신발들

### 김경숙, 민주주의의 봄을 부른다

김경숙 씨가 발견된 곳은 신민당사 뒤편 지하실 입  
구 시멘트 바닥이었다. 왼팔 동맥이 끊긴 채 추락해  
가날프게 숨을 쉬던 그녀는 녹십자병원으로 옮겨졌  
으나 곧 숨지고 말았다. 노동자가 고생하고 못 사는  
것이 자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군사정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온 자본가의 전횡 때문임을 안  
그녀는 농성과정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다. 죽  
기 4일전, 김경숙 씨는 고향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  
지를 쓴다.

“보고 싶은 엄마. 모든 사장들은 자기만 잘 살면 돈 없  
는 우리들쯤이야 자기를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 보지요?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착한 마음을 지니  
고 살아갑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요. 그래야 저 나쁜  
사장들과 다를 테니까요.”

그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나이 어린 여공들에  
대한 폭력과 죽음은 독재의 공포에 움츠러 있던 수  
많은 지식인, 학생, 종교인들에게 분노의 용기를 불  
러일으킨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은 당사를 제공했다  
는 이유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제명함으로써 부산  
과 마산의 대규모 항의시위를 자초한다. 그리고 이는  
정권의 내부분열을 일으켜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는 사태로 치닫는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것은 YH사건이 일어난 지 두 달만이였다. 여공  
들의 눈물과 김경숙 씨의 죽음은 18년 군사독재를 종  
식시키고 민주화의 봄을 부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  
다. 민주주의